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cok@gmail.com

[제1독서]..... 이사 42,1-4.6-7<또는 이사 40,1-5.9-11>

[화답송] 시편 29(28), 1ㄱ 과 2.3ㄱ과 4.3나과 9ㄷ-10(◎ 11나 참조)



(후렴) 주님이 당신 백성에 - 게 강복하여 평화를 -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저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제 2 독서]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3,4-7>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마르 9,7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3,15-16.21-22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1] 요르단 강에서
- 봉헌성가 [212] 너그러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 파견성가 [1] 나는 믿나이다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김 춘운 요셉	김 린다
전 마지 마가렛	가족
노 의선 프란치스코	가족
노 의선 프란치스코	연령회
이 중환 토마스 아퀴나스	연령회
이 중환 토마스 아퀴나스, 노의선 프란치스코	강 안드레아
이 영우, 이 태묘	이 상홍 스테파노
목 영순, 이 종현	이 경자 올리안나
유 선희 데레사	김 정연 로사
민 경하	민 완준 필립보
생미사	봉헌
새 사목위원, 단체장들	익명
김 가롤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전 경희 피아
울리타 김경련	익명
유 데이빗, 유 데니엘, 유 케이디	유 희순 그레이스
김 금옥 (영.육의 건강 위하여)	정 희자 리드비나
김 태희 요한	김 정연 로사
이 지연 안나 레지나	이 지훈 아네스
이 지연 안나 레지나 (생일 축하)	김 보현 엘리사벳
민덕미 안젤라, 성미나 아가다, 김효진 올리안나	이 경자 올리안나
엄 안토니오, 김 카타리나	익명
진 봉숙 소화 데레사	익명
성모회 회원들	민 덕미 안젤라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월9일	장혜운 크리스티나	채봉석 그레고리오	최진영 수산나	채봉석 그레고리오	김종선 비비안나	황예슬 엘리사벳	김하나 미리암
1월16일	이지훈 아네스	김규현 프란치스코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김영혜 안젤라	조소연 마르티나	이상하 카타리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 해 주실 새 사목위원들의 봉사에 감사드리며 신자 여러분들의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비드등 여러 쉽지 않은 상황아래서 지난 2년 또는 3년간 큰 사랑과 관심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신 구 사목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2년 후보 광고 신청 (신청비 : \$200)

후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COVID - 19 '오미크론'의 확산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 특징이니 더욱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미사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찬양팀	둘째 토요일 3:0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연중시기’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한 해의 흐름을 통하여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신랑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긴다.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일 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수난과 함께이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한 해를 주기로 하여, 주님 성탄인 강생에서부터 승천, 성령 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 이렇게 구속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를 신자들에게 열어, 신자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게 한다. (전례 현장 102항)

전례주년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이다. 따라서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을 기준으로하여 대림, 성탄, 사순, 부활시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 네시기를 제외한 33주간 또는 34주간이 연중 시기다. 대림 시기부터 시작되는 한 해의 전례주년에는 연중 시기가 두 번 있는데, 성탄 시기가 끝난 다음 부활 시기가 끝난 뒤다. 연중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어떤 특정한 면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억하며 경축한다. 이 시기의 미사 독서는 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공행확화 교회의 성장 모습을 들려 준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동희(헬레나) |
| 김용기(요셉) | 지군자(스테파니) |
| 정창동(폴리나) | 진정은(마리아) |
| 고종호(마태오) | 이진자(세실리아) |
| 홍봉운(바오로)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

[2022년 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 받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3,15-16.21-22)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 '세례를 받으시다'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세례 장면을 묘사하는 루카는 예수님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같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성령을 입으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위로와 구원의 선포'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성령을 입는다'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성별하여 뽑으셨다는 뜻이며, 그렇게 뽑힌 이는 하느님의 힘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사야서의 이름없는 종의 노래가 밝히는 메사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을 펼치는 일, 성경에서 '공정'이란 말은 '정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2독서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사야서의 하느님의 종을 동일시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성령과 하느님의 힘으로서 축성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예수님께서 차별없이 만민에게 공정을 펼치셨는데, 고함을 치거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한 열을 행하시고, 명들고 상처입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루카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세례성사의 집전자가 모모한 사람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특 쏘는 영성

“바리사이 콤플렉스”

주님과 늘 대립하던 바리사이파 사람들. 바리사이란 '분리된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숙된말로 '난 너희들과 달라' 라는 우월감을 말합니다. 이들은 열심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율법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했던 것이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법은 봤지만, 사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로 보신 반면에, 이들은 사람들을 죄인이나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는커녕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삶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우월감을 갖기 위해 애쓰는데, 종교 안에서 이런 야망을 치우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당에서 진상 짓을 하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자기가 영세 받은 지 오래된 것을 내세우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세우는 사람, 활동을 많이한 것을 자기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람 등 겸손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자기 무기로 내세우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본당마다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조언이라고 하며 잔소리를 해대고 심지어 자기 추종자들을 모아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종교 안에서의 작은 권력화 현상인데, 대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 콤플렉스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열핏 버섯 같아 보이지만, 독버섯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영적 체험이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 봉사는 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늘진 곳은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면 그 종교는 오염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일전을 벌이셨던 것입니다.

아재 유머입니다. 사막에서 혼자 수행하던 수도자가 죽어서 천당 문 쪽으로 가는데, 저 멀리 시장에서 매춘하던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런 여자는 천당에서 절대 안 받아 줄거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선포 천당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본인 차례. 그런데 서류를 보던 베드로 사도가 고개를 갸웃 하더니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야말로 청정하게 산 나를 왜 안 받아줍니까?"하고 볼멘소리로 항의하자 베드로 사도 왈 "저 여인은 생전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해서 천당 입소 추천서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난 평생 혼자 살아서 추천장이 하나도 없네~" 하더랍니다.

천당 들어가는 조건은 얼마나 죄없이 살았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는가입니다.